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활동에서의 '동해/일본해' 표기문제

사사가와평화재단
주임연구원 이찬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표기 문제는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활동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협력 문제에서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내에는 이 바다의 명칭표기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고정되어 있으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데서는 영문명칭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어로 [일본해]라는 명칭을 기반으로 한 [환일본해]라는 지역개념을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이 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지역개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작은 범위만을 한정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여기서는 필자가 일본에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명칭표기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 본고에서의 명칭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 1) 일본에서의 서측연안지방 표기 ; [일본해 연안지방]
- 2) 한국에서의 동측연안지방 표기 ; [동해 연안지방]
- 3) 동해/일본해의 일반표기 ; 병기

1. 일본에서의 환 [동해/일본해] 지역 협력 활동의 등장과 명칭표기문제

1.1 일본에서 환 [동해/일본해] 지역 협력운동의 등장

일본은 유사 이래로도 그러했지만 동서 냉전의 시기에 태평양측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이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해 연안지방]은 태평양 연안지역에 비해 산업과 무역이 뒤쳐지고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가 진행되어 [뒷일본]이란 표현으로 집약되듯이 불균형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80년대말부터 [일본해 연안지방]의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동해/일본해]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환일본해권]으로 명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비약시키려는 이른바 [환일본해경제권구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중국측이 제안하여 UNDP를 중심으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사업은 환 [동해/일본해] 지역 협력운동의 주요한 모델로서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정식으로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국교가 없다는 것이었다. 두만강지역개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일본해연안지방]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두만강지역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쏟았다. 니이가타현, 아키타현, 돗토리현 등은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과의 교류에 앞장섰다.

아키타현은 1999 년 8 월에 포시에트~아키타항로를 개설하는 등, 중국연변조선족 자치주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2 년에는 경제시찰단과 대표단이 훈춘과 연길을 방문하여 투자환경을 조사하였다.

돗토리현은 사카이미나토항을 서일본지역의 무역거점항으로서 두만강지역의 항구를 거쳐서 중국동북지방과 연계하는 중계기지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카이미나토항과 두만강지역의 항구와의 정기항로개설을 추진하여 왔다.

니이가타현은 쇼에츠시가 1996 년에 훈춘시와 「국제경제및 문화교류공동선언」을 조인하여 연수생 초청, 경제시찰단, 시민방문단의 파견 등 각분야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ERINA 는 두만강지역경제협력에 관해 다양한 촉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나타난 환 [동해/일본해] 지역 협력운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1) 지방자치체협력의 조직화

환 [동해/일본해] 지역에서 국제적인 지방자치체간 협력의 대표적인 형태는 돗토리현, 도야마현, 아키타현이 중심이 되어 일본, 중국, 한국, 몽골 및 러시아의 34 개 지방자치체의 교류추진을 위해 1996 년에 발족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체연합(NEAR)]이다. 또한 니이가타현의 ERINA 가 주최하는 [동북아시아경제회의]는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대표 및 유식자들로 2000 년 2 월에 [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동북아시아내의 지방간 협력의 틀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1964 년에 본주내의 12 개 현으로 구성된 [일본해연안지대진흥연맹]이 발족한 바 있으며 1993 년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환일본해교류서일본협의회]가 발족되었다.

2) 지방차원의 국제연구기관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환 [동해/일본해] 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류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1990 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었다. 1993 년에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가 설립된 것은 지방차원의 국제적인 경제연구소로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1995 년에 교토부에 [환일본해아카데미포럼]이, 그리고 돗토리현에 [돗토리정책종합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3)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니이가타현 등이 1990 년에 시작한 [환일본해교류권포럼]가 그 전형으로서 이는 1996 년부터 [동북아시아경제회의]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ERINA 가 주관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일본해연안지방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교류 및 협력을 테마로 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다.

4) 정당의 대응

구 일본사회당이 1990 년에 [환일본해포럼]을 니이가타시에서 개최한 이후 민주당이 이를 이어받아 [환일본해의원포럼]을 조직하였으며 이는 2003 년 6 월에 [동북아시아권우호의원포럼]으로 개칭되어 동북아문제의 분석,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자유민주당은 외교조사회 산하에 [동북아시아소위원회]를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5) 경제계의 대응

중앙의 경제계에서는 경제단체연합회가 1990 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 연해지방에 대한 미션을 보내고 있으며, 일중동북개발협회가 특히 중국동북지방과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방의 경제계에서는 각 현의 경제연합회가 전면에 나서서 동북아시아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02 년 6 월에 동북경제연합회는 [지역간교류로 개척하는 동북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소극적인 대신 지방자치체의 움직임이 적극적이며 특히 [일본해연안지방]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개발이 뒤쳐져 있었던 배경하에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이 동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출발한 것이다.

1.2 일본에서의 [동해/일본해] 명칭 표기문제

일본에서 동북아시아지역내 협력활동은 [동해/일본해] 명칭표기문제로 부딪혔다. 1980 년후반 일본에서 이른바 [환일본해권]구상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동해/일본해] 명칭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해연안지방]에 있어서는 하나의 아이덴티티였다. [태평양국토축]에 대응하는 [일본해국토축]의 개발을 염원하면서, 일본내 중앙(도쿄)의 주류가 아닌 지방이라는 비주류의 염원을 담은

명칭이었다.

따라서 각종 협의회 또는 연구기관, 단체가 구성되거나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 [동해/일본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본어에는 [일본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영문명칭을 표기할 때는 두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별도의 영문명칭을 부여하는 형태였다.

아래의 표는 일본의 환 [동해/일본해] 지역 협력을 위한 제반 조직중에 일본어로는 [일본해] 또는 [환일본해]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일람이다.

표 1.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일람

구분	명칭	본부 소재지	설립 시기	사업내용
협의회	J: 日本海沿岸地帯振興連盟 E: Japan Sea Coastal Region Promotion Federation	도야마	1964	심포지움
	J: 環日本海交流西日本協議會 E: Association of West Japan Region for Japan Sea Rim Exchange	돗토리	1993	지사회의
	J: 秋田環日本海交流推進協議會 E: Japan Sea Rim Trade Base Akita	아키타	1999	동북아시아지역 교류
	J: 北陸環日本海經濟交流促進協議會 (北陸 AJEC) E: Around Japan sea Economic exchange Conference	가나자와	1992	정보조사, 연구 인적교류, 잡지
연구기관, 단체	J: 環日本海經濟研究所 (ERINA) 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니이가타	1993	동북아시아관련경제연구 동북아시아경제회의개최
	J: 環日本海經濟交流 Center E: Northwest Pacific Region Economic Center	도야마	1993	무역, 투자 정보제공
	J: 環日本海 Academy Forum E: The Academy Forum for Northeast Asia	교토	1995	산, 학, 관의 연계
	J: 環日本海總合研究機構 (INAS) 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Study	도쿄	1996	동북아시아 관련연구

	J: 環日本海環境協力 Center (NPEC) E: Northwest Pacific Regio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도야마	1997	해양환경보존
	J: 日本海學推進機構 E: Japan Seaology Promotion Organization	도야마	2003	학문지원
	J: 日本海國際交流 Center E: NIHONKAI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가나자와		NPO 법인, 국제교류
학회	J: 環日本海學會 E: Association for the Japan Sea Rim Studies		1994	세미나개최
국제회의	J: 環日本海圈地方政府國際交流/協力 Summit E: The Reg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Summit of the Japan Sea Rim		1994	돗토리현, 강원도, 길림성, 연해지방
	J: 環日本海松江國際交流會議 E: The International Exchange Conference of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Sea of Japan	마즈에	1986	동북아시아 의 교류

(자료) 각종 문헌자료로부터 정리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어로는 모두 [일본해] 또는 [환일본해]를 사용하면서도 영문으로는 Northeast Asia 또는 Northeast Pacific 이라는 별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어로 [일본해]와 영어로 [Japan Sea]를 고수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조직명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가나자와시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북북환일본해경제교류촉진협의회, 돗토리현정부가 중심이 된 환일본해권지방정부국제교류/협력 서밋, 아키타현의 아키타환일본해교류추진협의회, 도야마현의 [일본해학추진기구] 등이 그것이다.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된 학회로서는 [환일본해학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학회의 회칙 제 1 조 2 항에는 [일본해의 각국에서의 표기에 대해서는 각국어를 존중한다]라고 하여 한국측의 문제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2) 일본어로 [일본해] 명칭과 영어로 별개 명칭을 표기하는 경우

이의 효시는 1993 년에 설립된 ERINA 이다. 이 조직은 일본 국내에서는 환일본해경제연구소이지만 영문 등기를 할 때 [환일본해]를 [동북아시아]로 고쳐서

등록하였다. 이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1995 년에 교토에 환일본해아카데미포럼이, 도쿄에는 환일본해총합기구가 영문명을 Northeast Asia 을[환일본해] 대신에 사용하였다. 이 밖에 도야마현은 환일본해경제교류센터, 환일본해환경협력센터, 환일본해센터 등의 영문명칭에 [환일본해]를 Northwest Pacific Region 로 표기하였다.

3) [일본해]를 사용한 일본어 명칭자체를 아예 [동북아시아]로 바꾼 경우

니이가타현 등이 1990 년에 시작한 [환일본해교류권포럼]의 명칭이 1996 년부터 [동북아시아경제회의]로 바뀌었다. 아키타현에서는 아키타환일본해교류추진협의회가 주최하는 [환일본해교류심포지움 in 아키타]의 명칭이 2002 년 9 월부터 [동북아시아교류심포지움 in 아키타]로 바뀌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포럼인 [환일본해의원포럼]은 2003 년 6 월에 [동북아시아권우호의원포럼]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재미있는 것은 마즈에시가 1986 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환일본해마즈에국제교류회의]이다. 이 회의의 정식명칭은 1992 년(제 6 회)부터 [환일본해/동해 시리즈]로 바뀌었는데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1994 년부터는 정식명칭을 [동북아시아 시리즈]로 바꾸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내에서도 일본어인 [일본해]를 영어로 표기하는데에서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바다로서의 [동해/일본해]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로도 영어로도 [일본해]를 고집하면서도, 환[동해/일본해] 지역 등 국제적인 지역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어인 [일본해]와 함께 영어로 별도의 명칭(Northeast Aisa 또는 Northwest Pacific) 을 사용하거나 일본어 명칭에서도 아예 [일본해]를 없애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지방자치체가 국제협력을 하는 경우 한국 또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2. ERINA 에서의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와 관련된 경험

필자는 1994 년 4 월-96 년 3 월, 99 년 5 월-2003 년 3 월 사이에 합계 약 6 년간 ERINA 에서 동북아시아협력과 관련한 연구/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ERINA 는 1993 년 10 월에 [환일본해경제권]구상의 염원을 안고 [일본해연안지방]인 니이가타시에 설립되었다. 등기된 명칭은 일본어로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영어로 ERINA 로 되었다. 국내정서와 국제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처음 부임한 1994 년초에는 연구소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ERINA] 명칭보다는 일본어인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명칭이 국내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본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접촉시에는 [환동해경제연구소] 또는

영어명인 ERINA 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니이가타현 등이 1990 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국제회의를 ERINA 가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주최하기 시작하면서 국제회의의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1994 년 2 월에는 기존의 명칭인 [환일본해교류권국제포럼]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1995 년 2 월에는 미국 하와이 동서센타와의 공동주최로 당 센타가 1991 년부터 주최해온 동북아시아경제포럼 제 5 회 회의를 니이가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해]명칭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어 1996 년부터는 국제회의 명칭을 아예 [동북아시아경제회의]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 국제회의에는 1996 년과 1998 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한국의 정부인사가 함께 정식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국은 1999 년까지 동 국제회의에 정부인사와 국제연구기관 대표가 참가하였으나 2000 년과 2001 년에는 민간경제계인사를 제외한 정부계 인사는 참가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회의의 명칭이 [동북아시아경제회의]라 하더라도 그 주최기관인 ERINA 의 일본어 명칭에 [일본해]가 들어있으며 [일본해]라는 한자어는 동북아에서 통용되는 문자로서 한국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2 년 2 월의 [동북아경제회의]에야 비로서 주일한국대사관의 대표가 공식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ERINA 가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와 관련해 취하고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ERINA 가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와 관련해 취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국제회의

- 환[동해/일본해]지역은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으로 표기한다. 이는 번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 좁은 의미에서 한반도의 동해안, 러시아 연해지방, 일본의 서해안 지역 만을 지칭하여 바다의 명칭이 중요한 경우에는 환[동해/일본해]지역으로 병기한다.
- 환[동해/일본해]지역을 국제회의상에서의 통역의 경우 일본인이 [환일본해지역]으로 발언한 경우 한국어로는 [환동해지역]으로, 기타 외국어로는 [동북아시아지역]으로 통역한다. 한국인이 [환동해지역]으로 발언한 경우 일본어로는 [환일본해지역]으로 기타 외국어로는 [동북아시아지역]으로 통역한다.
- 일본인이 발표한 일본어 원고에서 [일본해]가 들어있는 경우 일본어원본은 [일본해]로, 영어번역본에는 [동해/일본해]로 병기한다. (저자 원고 존중, 번역시 병기 원칙)
- 외국인이 발표한 외국어(한글, 중국어, 러시아어) 원고에서 [동해] 또는 [일본해]가 들어있는 경우, 일본어번역본, 영어번역본에 [동해/일본해]로 병기한다.
- 외국인 또는 일본인이 직접 영어로 발표한 원고에서 [동해] 또는 [일본해]가 들어있는 경우 그대로 실는다.

(2) ERINA 의 사업

- 국내외에서 [환일본해경제연구소]라는 명칭보다 [ERINA] 명칭을 통용 명칭으로 사용한다.
- 전화 응대시에 [ERINA 입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 ERINA 가 제작/사용하는 동북아시아 지도에 동해/일본해 명칭을 아예 삭제한 지도를 주로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한다.

즉,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동해/일본해의 병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요연구기관인 ERINA 가 바다명칭의 병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 것으로서 2002 년 이후에는 ERINA 주최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한국국책연구기관도 ERINA 와의 연구협력협정 체결, 객원연구원 파견 등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3. 새로운 바다명칭 표기의 필요성

일본에서 동북아시아지역 협력활동에 참여하면서 동해/일본해 표기문제는 참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일본해 표기가 20 세기 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1602 년 마테오 릿치의 지도 [坤輿萬國全圖]에 처음 나온 이후 18 세기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물적 증거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본해연안지방]의 경우 [일본해]라는 명칭을 단순한 바다의 명칭이 아니라 낙후한 지방의 아이덴티티로서 지방발전의 모티브로서 애정을 갖고 사용하고 있다. 다만, 지방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한반도를 배려하여 국내에서 통용해왔던 [환일본해권]의 명칭을 [동북아시아] 등으로 바꾸거나, 동해/일본해로 병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RINA 가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병기조차 허용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일본해]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는 국제회의시에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일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동해 또는 Korea Sea 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보면 일본 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이지만, 단독표기의 중간단계로서 동해/일본해의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병기 수준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간에 위치한 공해상의 바다를 무엇으로 명명할 것인지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동쪽 바다를 동해로 부르는 것과 일본이 서쪽 바다를 일본해로 부르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양국의 영해가 아닌 중간지역 공해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합의하는 것일 것이다. 정치적 색채가 없는 자연의 이름으로, 또는 2002 년 Korea-Japan 월드컵때와 같은 방법으로 Korea-Japan Sea 로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